

Ciba, 2008년 순익 5억유로 적자

매출 9% 감소에 순손실 4억8500만달러 ... 2007년과 뚜렷한 대조

스위스 Ciba Specialty Chemical이 2008년 적자로 돌아섰다.

Ciba는 2008년 5억6400만CHF(4억8500만달러)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2월10일 발표했다.

2007년에는 2억3700만CHF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매출액이 65억2000만CHF에서 59억2만CHF로 9%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됐다.

브레당 쿼멩 CEO는 “원료코스트가 하락하고 있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수요가 회복될 것”으로 전망함으로써 2009년 상반기에도 고전이 예상된다.

특히, 2008년 4/4분기에는 순손실이 4100만CHF에 달해 2007년 4/4분기 8400만CHF의 순이익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11>